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민 지 장 혜 인[†] 전 진 용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에 기여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통합적 영향을 규명할 목적으로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87명이 차별지각, 문화적응(남한문화지향, 북한문화지향),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 남한거주기간, 표집 기관 등은 공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PROCESS macro로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효과가 문화적응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우울을 예측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차별지각과 남한문화지향의 주효과, 그리고 차별지각×북한문화지향×남한문화지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2016년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 02-760-0490, E-mail : hichang@skku.edu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유입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8월 기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9,688명이고, 이 중 여성이 약 71%인 29,688명으로 추정된다(통일부 자료실, 20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연희, 전우택, & 조영아, 2010; 김은경 & 권정혜, 2009; 김화순, 2010; 임지영, 신현균, & 김희경, 2010; 채정민 & 김중남, 2004; 최희철, 2013).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신병리를 비롯하여, 심리적 부적응에 매우 취약함을 밝히고 있다(강숙정, 2009; 김병창, 2010; 이기영, 1998; 이장호, 1997; 전우택, 1997;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 엄진섭, 2005; 한인영, 2001).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탈북 전·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며(신현균, 김희경, & 임지영, 2010; 윤인진, 2007),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체화 증상 등의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성록, 2000; 김미령, 2005; 김병창, 2010; 김연희, 2006; 김현경, 2007; 2009; 박철욱, 2007; 신현균 등, 2010; 유정자, 2006; 이경희 & 배성우, 2006; 전우택, 2004; 조영아 등, 2005; 최희철, 2013; 한인영, 2001; 홍창형, 2004). 특히 국경없는 의사회(2006)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남한 내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76명을 상담한 결과, 37.6%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우울장애가 22.2%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는 '심리적 독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흔한 장애이지만 자살을 비롯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결과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며(권석만, 2013; Waraich, Goldner, Somers, & Hsu, 2004),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하APA).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우울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 집단일 수 있으며, 이들의 우울 기제를 확인하는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임상적, 정책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여성이나 임상군을 대상으로는 우울의 예측요인과 기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일관되게 여러 연구자들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이들의 특수한 경험을 반영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연희 등, 2010; 김은경 & 권정혜, 2009; 김병창, 2010; 김태동, 2010; 김현경, 2013; 박정순, 2014; 엄미도, 2013; 이겨레, 2011; 임지영 등, 2010; 조영아, 2011; 조영아 등, 2005; 채정민, 2003; 최희철, 2013 등). 하지만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대부분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유관연구로는 이주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유사성을 지니기에(김나연, 2012; 엄태완, 2007; 이기영 & 엄태완, 2003)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주민이나 난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연구에서는 차별지각(perceived discrimina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Berry, 2003; Berry, Kim, Minde, & Mok, 1987; Cardo, 1994; Pascoe & Smart Richman, 2009; Smart & Smart, 1993).

먼저 ‘차별지각’은 개인이 차별경험을 얼마나 느끼고 지각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Cardo, 1994). 차별지각은 이주민이나 난민의 스트레스원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경험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울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Williams, Neighbors, & Jackson, 2003). 이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또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지각하며(박순성 등, 2009; 선한승 등, 2005; 윤여상 등, 2005; 윤인진 등, 2005; 장명선 & 이애란, 2009), 그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나연, 2012; 박정순, 2014; 조영아, 2011). 하지만 Cook, Alegria, Lin과 Guo(2009)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지각의 영향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차별지각의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제안된 개념으로는 ‘문화적응’이 있다(Alamilla, Kim, & Lam, 2010). 문화적응은 개인의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한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 행동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이승중, 1996; Berry et al., 1987). 문화적응은 새로 정착하려는 곳의 문화를 따르려는 ‘주류문화지향’과 원래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전통문화지향’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며(Berry,

2003), 두 문화지향이 모두 높은 경우와 모두 낮은 경우가 각각 정적, 부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2006; 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각 문화지향이 독립적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있으나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Berry, 2006; Lorenzo-Blanco & Cortina, 2013; LaFromboise et al., 1993 등). Shen 과 Takeuchi(2001)는 미국 거주 동남아시아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주류문화지향이 높은 난민의 경우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열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적응 및 정신건강 수준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중 문화적응이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주민이나 난민연구에 근거하면 북한이탈주민 역시 문화적응, 즉 남한문화지향, 북한문화지향, 또는 그 조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특성상 유사집단 연구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세계 여러 지역의 이주민이나 난민과는 달리 원문화와 주류문화가 언어적, 민족적 동질성을 띠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김나연, 2012; 윤옥경, 2009),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정서, 감정, 인지 방식, 가치관, 전반적 생활양식 및 문화 규범을 바탕으로 한 원문화와 주류문화를 갖는다는 점(채정민, 2003)을 고려하여 문화적응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할 것으로 제안된 변인으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있다(Torres, Driscoll, & Voell, 2012). 여기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개인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역기능을 의미한다(Berry et al., 1987).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며(Smart & Smart, 1995)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Moyerman & Forman, 1992; Williams & Berry, 1991) 새로운 사회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이소래, 1997).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결과, 남한 이주 후 새로운 문화 안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매우 심하며(이소래, 1977; 채정민, 2003), 이는 높은 우울 수준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2006; 엄태완, 2004; 조영아 등, 2005).

하지만 선행연구는 대체로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거나 이들 요인 중 두 가지를 포함하여 연구했을 뿐(Berry, 2006; Lorenzo-Blanco, Unger, Ritt-Olson, Soto, & Baezconde-Garbanati, 2011; Moyerman & Forman, 1992), 모두 함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들 변인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시사한 이론 및 경험연구가 있어왔다(Finch, Hummer, Kolody, & Vega, 2001; Finch, Kolody, & Vega, 2000; Mossakowski, 2003; Torres et al., 2012).

구체적으로, 차별지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안된 바 있는데(Dawson & Panchanadeswaran, 2010),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차별지각과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먼저 스트레스 과정(stress process)이 있다(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Pearlin 등(1981)에 따르면 특정 스트레스 경험은 새로운 스트레스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 및 압박감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Pascoe와 Smart Richman(2009)은 고조된 스트레스 반응(heightened stress response)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생물학적 민감성이 고조되고 이는 고조된 스트레스 반응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 연구에서 확인한 Torres 등(2012)의 라틴계 미국인 연구에서는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이는 더 높은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차별지각의 효과는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Alamilla et al., 2010). 이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평가-대처이론(stress-appraisal-coping theory)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결과는 개인이 취하는 인지적 평가와 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Taft(1977)에 따르면 인간의 적응은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대처를 수반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대처 과정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결국 개인이 보이는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일종의 대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Kosic, 2004). 이와 같이 개인의 문화적응 수준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제안에 따라(Berry, 2006; Schmitz, 1992), 북한이탈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인 차별지각의 효과를 문화적응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차별지각, 문화적

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함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우선 세 변인 중 두 가지를 포함한 연구로는 차별지각과 문화적응(Mossakowski, 2003), 차별지각과 문화적응 스트레스(Finch et al., 2000)를 함께 살펴본 연구가 있고, 세 변인의 효과를 함께 살펴 본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Torres 등(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Torres 등(2012)은 라틴계 이주민의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이 높아지는데 이때 차별지각의 효과가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들의 효과와 그 기제를 밝히는 시도를 통해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 거주 라틴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기에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주 사례인(김나연, 201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문화적응이 가치관과 같은 인지·정서적 양상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어 선호로 대표되는 행동적 양상에 치우쳐 측정했고, '전통문화지향'과 '주류문화지향'의 독립적인 효과만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외 난민이나 이주민이 경험하는 언어 이질성을 비롯해,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보다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문화적응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복합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차별지각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을 예측할 것이며, 이 과정을 문화적응, 즉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대처로는 능동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Pascoe와 Smart Richman (2009)의 제안을 바탕으로 두 문화지향 모두 높을 때를 능동적 대처로, 두 문화지향 모두 낮을 때를 수동적 대처로 가정하여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고, 이는 높은 우울 수준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2. 문화적응에 따라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이 모두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이 모두 낮을수록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97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0명의 자료를 제

외한 뒤 총 8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환자는 8명(9%),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은 79명(91%)이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9.2세($SD=12.57$), 평균 남한 거주 기간은 약 19개월($SD=35.22$)이었다.

연구절차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참가자들에게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연령, 남한사회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를 자기보고로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이 모든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수집된 정보는 오로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알린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측정도구

차별지각(Daily Life Experience: DLE)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rell(1997)의 인종차별 및 일상 경험 척도(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의 일상생활 경험(Daily Life Experience: DLE) 하위척도를 사용했다(Harrell, Merchant, & Young, 1997). DLE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e.g., 주위사람들이 당신을 배려하지 않고 모욕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경험의 빈도와 그로 인한 불편감을 측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고광신(2011)이 D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지각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차별경험에 대해 보고하는 불편감이 차별경험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하였기에(고광신, 2011; Sellers and Shelton, 2003),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불편감 정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본 질문지는 원문과 동일하게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DLE를 사용한 국내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 일치도는 .80 이상으로 높았고(고광신, 2011; 박정순, 2014),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문화적응(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Ryder, Alden과 Paulhus(2000)가 개발한 밴쿠버 문화적응 척도(Vancouver Index Acculturation: VIA)를 사용했다. VIA는 문화적응의 공통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질문지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념, 전통문화 및 주류문화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전통문화 및 주류문화의 춤/노래/유머 등 문화적 양식에 대한 선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차원적인 접근을 취하여 전통문화 척도와 주류문화 척도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척도를 이루고 있는 구성개념들은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의 공통요소로 추출된 구성개념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김은경, 권정혜, 2009). 본 연구에서는 김은경과 권정혜(2009)가 VIA를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는 작업을 거쳐 문화적응 양상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 탈북자 문화적응 척도를 사용했다. 문항 수는 총 20개로 전통문화 척도 10개(e.g., 나는 나와 같은 북한출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편하다), 주류문화 척도 10개(e.g., 나는 남한 문화의 가

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9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9점: 전적으로 동의함)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연구자들은 결혼, 문화풍습 유지·발전과 관련된 문항의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성이 낮아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으나(김은경, 권정혜, 2009)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된 문항 없이 20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화 연구 당시의 내적 일치도는 북한문화지향 척도 .80, 남한문화지향 척도 .82로 나타났으며(김은경, 권정혜, 2009),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북한문화지향 척도 .82, 남한문화지향 척도 .80으로 각각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MASI)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Rodriguez 등(2002)의 다차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MASI)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스페인어 역량 압력, 영어 역량 압력, 문화적응 압력,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험 유무를 먼저 확인 한 후(0: 해당경험 없음) 해당 경험이 있을 시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5: 매우 스트레스를 받음)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를 북한과 남한으로 각각 번안, 적용하여 북한 문화어 역량 압력(e.g., 사람들이 내가 북한 문

화어를 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신경이 쓰인다.), 남한 표준어 역량 압력(e.g., 나는 남한 표준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문화적응 압력(e.g., 나는 사람들이 내가 남한사람들의 방식에 동화되도록 압박할 때 신경이 쓰인다.),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e.g., 사람들은 내가 남한식 관습을 지키면 나를 무시한다.)을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스페인어 역량 압력이 .93, 영어 역량 압력이 .91, 문화적응 압력이 .84,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이 .77이었다(Rodriguez et al., 2002).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고, 각 하위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북한 문화어 역량 압력이 .72, 남한 표준어 역량 압력이 .79, 문화적응 압력이 .84,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이 .76이었다.

우울(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Radloff(1977)의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e.g.,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게 ~ 3점: 거의 대부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이를 번안 및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통합형 한국판 CES-D가 개발되었다(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Radloff(1977)의 연구에서의 CES-D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일반 성인 집단의 경우 .85, 환자 집단의 경우 .90으로 나

타났으며,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는 총 8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SPSS Statistics version 20과 Hayes(2016)의 PROCESS macro for SPSS v2.1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후 PROCESS를 사용하여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종속 변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연령(김현아 & 전명남, 2003; 조영아 등, 2005), 남한 거주 기간(노대균, 2001; 조영아 등, 2005; 최희철, 2013)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된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에 있어서,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재추출한 표본수를 5,000개

로 설정하였고, PROCESS 에서 산출되는 비표준화계수(B)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차별지각이 매개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인인 문화적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연구변인 간 영차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공변인으로 포함한 연령과 거주기간이 모든 측정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문화지향을 제외한 본 연구의 모든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 통계치

	1	2	3	4	5	6	7
1. 연령	1						
2. 남한거주기간(개월)	.52**	1					
3. 차별지각	.34**	.45**	1				
4. 북한문화지향	.36**	.25*	.12	1			
5. 남한문화지향	-.43**	-.46**	-.29**	-.40**	1		
6. 문화적응 스트레스	.30**	.26*	.40**	.23*	-.27*	1	
7. 우울	.30**	.32**	.57**	.17	-.41**	.50**	1
<i>M</i>	39.2	18.87	11.20	35.86	62.41	43.41	16.10
<i>SD</i>	12.57	35.22	2.95	13.37	11.27	19.54	10.49

주. * $p < .05$, ** $p < .01$

표 2. 표집 기관에 따른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하나센터 n=79, 국립정신건강센터 n=8)

변인	평균(표준편차)		t
	하나센터	국립정신 건강센터	
차별지각	10.70(2.04)	16.13(5.49)	-2.78*
북한문화지향	34.98(13.03)	44.63(14.42)	-1.98
남한문화지향	63.67(10.54)	50.00(11.30)	3.47**
문화적응 스트레스	41.51(18.93)	52.38(24.42)	-1.37
우울	14.34(8.84)	33.50(10.06)	-5.77**

주. * $p < .05$, ** $p < .01$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인 우울과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지각을 많이 할수록, $r = .57, p < .0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r = .50, p < .01$ 우울의 수준이 더 높았고, 남한문화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41, p < .01$.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은 매개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r = .40, p < .01$, 북한문화지향이 높을수록, $r = .23, p < .0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았고, 남한문화지향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다, $r = -.27, p < .05$.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차별지각, 북한문화지향은 남한문화지향과 각각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남한문화지향은 낮았고, $r = -.29, p < .01$, 북한문화지향을 더 많이 할수록 남한문화지향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0, p < .01$. 그러나 차별지각과 북한문화지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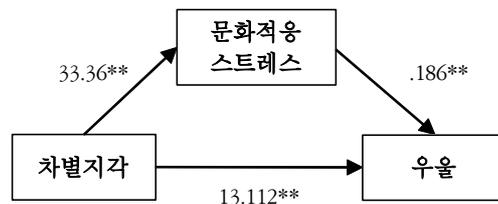
않았다.

표집 기관에 따른 독립 표본 t검정

표집 기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차별지각, 남한문화지향, 우울수준에서 표집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모집한 표본이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표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별지각과 우울 수준을 보였고, 더 낮은 수준의 남한문화지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집 기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후 모든 분석에서 표집 기관을 공변인 처리하였다.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PROCESS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그림 1). 차별지각, 문화적응 스트레스, 통제변인이 종속변인인



우울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우울 총 변량의 50.8%를, $R^2=.508$, $F_{(5,81)}=20.752$, $p<.001$,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때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33.360$, $t_{82}=2.898$, $p=.005$,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B=.186$, $t_{81}=3.913$, $p<.001$, 각각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을 통해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그 결과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B=6.198$, 95% CI[2.368, 12.826]. 한편,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는데, $B=13.112$, $t_{81}=2.593$, $p=.011$,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통제하고 나서도 직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한 연령, 남한사회 거주기간, 표집 기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표집 기관에 따른 차이가(하나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유의했다, $B=13.411$, $t_{81}=3.058$, $p=.003$.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의 매개된 조절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확인한 차별지각,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로 이어지는 매개경로가 문화적응, 즉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지를 살펴보았다. PROCESS Model 12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그림 2), 매개된 조절모형은 우울 총 변량의 57%를, $R^2=.570$, $F_{(11,75)}=11.777$, $p<.001$,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예측변인인 차별지각과 문화적응 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었다. 이는 비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190$, $t_{75}=4.074$, $p<.001$,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우울을 직접 예측하는 직접경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차별지각은 정적으로 우울을 예측하였고, $B=16.375$, $t_{75}=3.482$, $p=.001$, 남한문화지향은 부적으로 우울을 예측하였다, $B=-.232$, $t_{75}=-2.825$, $p=.006$. 나아가 차별지각×북한문화지향×남한문화지향의 삼원상호작용이 매개변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3$, $t_{75}=2.405$, $p=.019$.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사후분석은 삼원상호작용 또는 조절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PROCESS Model 3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기존 분석에서 그 효과를 통제하였던 연령, 거주기간, 표집 기관에 매개변인이었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차별지각, 북한문화지향, 남한문화지향의 세 독립변인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지각×북한문화지향×남한문화지향의 삼원상호작용의 고유한 설명량은 2.6%이었다, $\Delta R^2=.026$, $F_{(1,75)}=5.782$, $p=.019$. 이때 차별지각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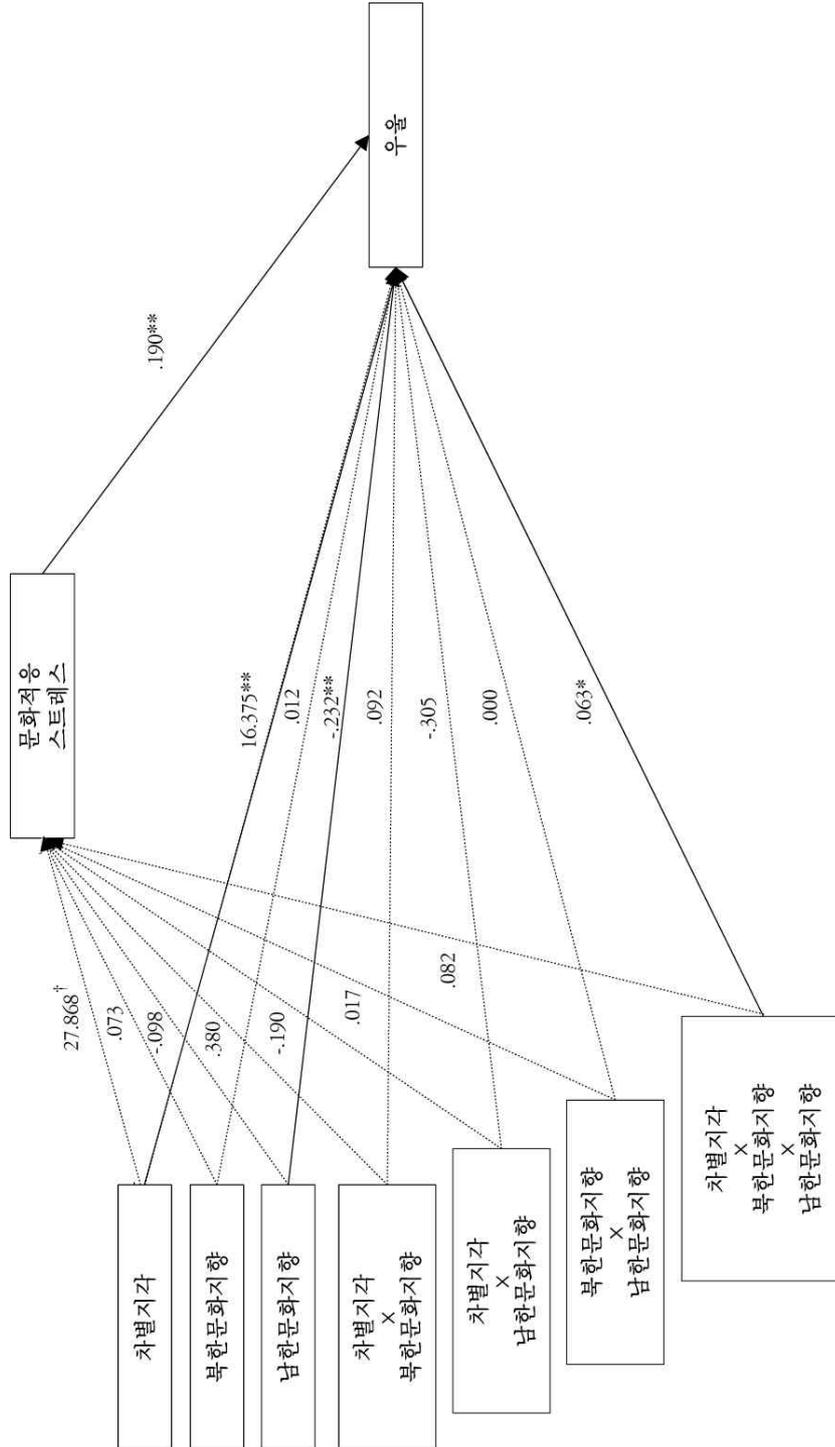


그림 2. 차별지각, 북한문화지향, 남한문화지향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주. $^{\dagger} p < .10$, * $p < .05$, ** $p < .0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북한문화지향x남한문화지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별지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큰 점수를 '고' 집단으로, 1 표준편차 작은 점수를 '저'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에서 북한문화지향과 남한문화지향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차별지각이 높은 집단에서는 북한문화지향과 남한문화지향의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t_{75}=2.412, p=.018$. 하지만 차별지각이 낮은 집단에서는 우울에 대한 두 문화지향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t_{75}=-1.625, p=.108$. 구체적인 삼원상호작용의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차별지각이 높을 때, 북한문화지향이 낮은 경우 남한문화지향이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을 예측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t_{75}=-3.833, p<.001$, 북한문화지향이 높은 경우 남한문화지향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_{75}=-.724, p=.472$. 반면 차별지각이 낮을 때, 북한문화지향이 낮은 경우 남한문화지향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t_{75}=-.068, p=.946$, 북한문화지향이 높은 경우 남한문화지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을 예측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t_{75}=-1.883, p=.064$.

앞선 분석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지각이 높으면서 북한문화지향과 남한문화지향이 모두 낮은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였고, 차별지각이 낮으면서 북한문화지향과 남한문화지향이 모두 높은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령, 남한사회 거주기간, 표집 기관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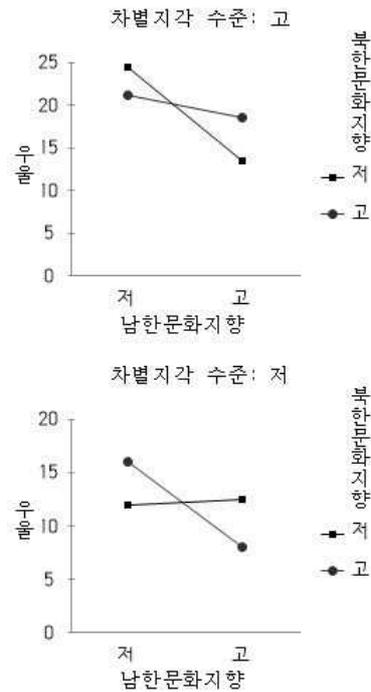


그림 3. 차별지각 수준에 따른 북한문화지향x남한문화지향의 상호작용 효과

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남한사회 거주기간과, $B=-.071, t_{75}=-3.406, p=.001$, 표집 기관에 따른 차이가(하나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B=13.305, t_{75}=3.747, p=.001$, 각각 유의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여성 집단에 두드러지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각각, 또 상호작용하여 우울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우울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아래 기술한 학문적, 실제적 함의가 클 것이다.

먼저, 차별지각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고, 이는 높은 우울수준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때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차별지각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가 다양하며(김나연, 2012; 조영아, 2011), 그 중 하나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는 간접 경로를 지지한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Torres et al., 2012)와도 일관된 결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차별경험의 효과가 이주민이나 난민 등 유사집단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지각하는 차별경험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압박감을 악화시킴으로써 우울을 고조시키거나(Pearlin et al., 1981), 생물학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다음으로, 문화적응에 따라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문화적응, 즉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이 분석모형에 포함이 되면서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로의 크

기가 경향성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을 예측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또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서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차별지각과 두 문화지향의 삼원상호작용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우울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는 비록 그 설명력의 크기는 2.6%로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추가 설명력이 작은 것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한 차별지각, 남한문화지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명력이 크진 않지만 삼원상호작용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별지각과 문화적응이 복합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의 두 차원, 즉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의 조합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모두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상한 방향과 달리 차별지각이 높을 때, 북한문화지향이 낮고 남한문화지향이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익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두 문화지향이 모두

높은 경우가 가장 좋은 정신건강 결과를 예측하고, 한 쪽 문화지향만 높은 경우는 그 중간 수준의 영향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Berry, 1997; 2006; LaFromboise et al., 1993)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결과는 난민의 경우 주류문화지향이 높을수록 더 나은 적응과 정신건강을 보일 수 있다는 Shen과 Takeuchi(2001)의 제안과, 차별지각의 효과를 주류문화지향이 완충한다는 Torres 등(2012)의 연구 결과와는 일관된다. Torres 등(2012)의 연구에서는 주류문화지향을 언어지향으로 한정해서 측정하였고, Shen 과 Takeuchi(2001)는 언어 능력을 들어 주류문화지향의 효과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남한문화지향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사용과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이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적게 할 뿐만 아니라 차별지각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문화지향이 차별지각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차별지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대처 전략이 적극적 대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Pascoe & Smart Richman, 2009)를 고려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차별지각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문화지향이 적극적 대처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남한 사회의 차별적 분위기와 사회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차별지각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우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변화와 적응을 위한 정보와 기회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이 차별지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한문화지향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높은 남한문화지향은 우울에 대한 차별지각의 효과를 완충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문화지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 경로가 단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차별지각이 높을 때, 북한문화지향이 높은 경우 남한문화지향의 수준에 따라 우울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전통문화지향의 효과가 전통문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제안(Arbona, Jackson, McCoy, & Blakely, 1999)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며,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북한문화(이수정, 양계민, 2013; 채정민, 2003)에 대한 지향이 강한 개인이 차별경험을 많이 할 경우 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남한문화지향의 완충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경향성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차별지각이 낮을 때, 두 문화지향이 모두 높을수록 차별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주류문화지향과 전통문화지향이 모두 높을 때 개인의 정신건강이 가장 좋다는 선행연구(Berry, 2006; LaFromboise et al., 1993)와 그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한다. 차별지각이 낮을 때 이러한 양상이 관찰되는 이유로, 차별지각이 낮은 경우 북한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두 문화에서 더 적응적인 방

법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북한문화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문화지향과 북한문화지향이 모두 낮을수록 우울에 대한 차별지각의 효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 차별지각이 높을 때, 북한문화지향과 남한문화지향이 모두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두 문화지향이 모두 낮을 때 가장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Berry, 1997; 2006; LaFromboise et al., 1993)와 일치한다. 또한 문화적응이 지니는 스트레스-대처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차별지각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두 문화지향이 모두 낮은 경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특징으로 한 회피지향적대처(Endler & Parker, 1994)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결과는 소극적인 대처가 능동적 대처보다 차별지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Pascoe와 Smart Richman(2009)의 메타 분석 연구 결과와도 맥락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접근이 어려운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주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e.g., 김승현, 최빛내, 2013; 김태국, 정은이, 2014; 장문선, 손의정, 2014; 채정민, 2016 등)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복잡한 본 연구의 모형과 그 분석방법을 고려했을 때 작은 표본의 크기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국립정신

건강센터 및 하나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동일하게 결과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통일부 자료실,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하나센터라는 실질적인 표집기관으로 인한 표본의 동질성과 관련된 한계점도 존재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외래 환자 표본은 정신건강 문제로 내원한 임상군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적응 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하나센터 표본은 임상군과 비임상군이 섞여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바, 실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독립표본 검정 결과에서도 차별지각, 남한문화지향, 우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집 기관을 공변인에 포함시켜 그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표집 기관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고, 실제 거주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표본을 표집하여 차별지각, 문화적응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기제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질문지의 모든 표현이 남한 식인데다가 남한 사람이 연구 진행자인 연구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지각, 북한문화지향,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관련된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변인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질문지의 표현을 북한 문화어에 맞게 수정 및 타당화 과정을 거친 후 연구에 사용하거나, 연구 진행 장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계하거나 의식할만한 설정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문지의 응답자에 연구 대상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 또래, 또는 기관의 담당자 등을 포함시켜 수집경로를 다양화 하는 방법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측정된 모든 변인들은 한 번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 및 전후관계를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은 시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이들의 정신건강 예측에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측정 변인들을 시간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임상적, 그리고 사회적 의의 및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함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국내 유일한 연구이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에게서 우울의 기제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문화적응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차별지각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본 결과는 해외 난민이나 이주민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반복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난민이나 이주민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으며, 남한 사회에 만연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이수정, 양계민, 2013; 채정민, 2003)를 포함해 정치적, 이념적 맥락 안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문화적응의 효과는 개인이 속한 사회가 지니는 이념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 연구자들(Berry, 2009; Jasinskaja-Lahti, Liebkind, Horenczyk, & Schmitz, 2003)의 제안과도 일관되며, 이러한 노력의 축적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다른 난민이나 이주민과 공유하는 특성은 물론, 독특한 특수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71% 가량을 차지하고(통일부 자료실, 2016) 우울 취약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APA, 2013)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가 크다. 본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선별하고 개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높은 차별지각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두 문화지향 모두 낮은 개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개인의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개입 대상과 표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지각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확인한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일방적인 남한사회의 적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만연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지향하고 싶은 '남한문화'를 만드는 데에 개인 및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한문화지향이 우울에 대해 보이는 보호효과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이후 통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성록 (2000). 탈북자들의 외상척도 개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강숙정 (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 프파워 증진 프로그램개발. 홍익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고광신 (2011). 국내거주 고려인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국경없는 의사회 (2006). 한국 내 북한인을 위한 심리지원. 2005년도 연간보고서.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나연 (2012). 북한이탈주민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자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병창 (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정책포럼, 4, 19-37.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533-548.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2007년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141-174.
- 김은경, 권정혜 (2009).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61-781.
- 김태국, 정은의 (2014). 포스터 발표: 제 1 분과 임상;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이후 경과시간과 외상 후 성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014(1), 257-257.
- 김태동 (2010).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관계에서 탈북 후기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0(9), 277-296.
- 김현경 (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현경 (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 경험. 한국학술정보(주).
- 김현경 (2013). 남한거주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심리적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14, 225-262.
- 김현아, 전명남 (2003). MMPI 에 나타난 북한

- 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김화순 (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76-110.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박순성, 고유환, 소라미, 이임하, 이희영, 전미영, 차문석, 홍민 (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박정순 (2014).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박철옥 (2007).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선한승, 강일규, 김영윤,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북한이탈주민 취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신현균, 김희경, 임지영(2010),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 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9(3), 777-798.
- 엄미도 (201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5-32.
- 엄태완 (2007).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대처 향상 전략. 통일정책연구, 16(2), 173-197.
- 유정자 (2006).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보호기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여상, 윤인진, 이금순, 안혜영, 서윤환, 엄홍석 (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옥경 (2009). 중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새터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6), 820-833.
- 윤인진 (200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65-96.
- 윤인진, 길은배, 박영희, 엄홍석, 윤여상, 채정민 (2005).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이겨레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경희, 배성우 (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1-28.
- 이기영 (1998).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161-176.
- 이기영, 엄태완 (2003).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6, 5-28.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

- 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395-421.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장호 (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노총*, 28(4), 739-789.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장명선, 이에란 (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장문선, 손의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적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973-999.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1), 1-19.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응 기재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채정민 (2015). 북한이탈주민의 질문지 응답 패턴 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8), 226-226.
- 채정민, 김종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최희철 (2013).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경기도 거주자를 중심으로 -. *다문화교육연구*, 12(4), 107-129.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8-94.
- 홍창형 (200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통일부 자료실 (2016). <http://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에서 인출.
- Alamilla, S. G., Kim, B. S., & Lam, N. A. (2010). Acculturation, Enculturation, Perceived Racism, Minority Status Stressors,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among Latino/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2(1), 55-7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rbona, C., Jackson, R. H., McCoy, A., & Blakely, C. (1999). Ethnic identity as a

- predictor of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fighting.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23-340.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2006). Acculturative stress. In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287-298). Springer US.
- Berry, J. W. (2009). A critique of critical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5), 361-371.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91-511.
- Cardo, L.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measuring valence of ethnicity and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1), 49-59.
- Cook, B., Alegría, M., Lin, J. Y., & Guo, J. (2009). Pathways and correlates connecting Latinos' mental health with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12), 2247-2254.
- Dawson, B. A., & Panchanadeswaran, S. (2010).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among first-generation Dominica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2(2), 216 - 231.
- Endler, N. S., & Parker, J. D.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Task, emo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1), 50.
- Finch, B. K., Hummer, R. A., Kolody, B., & Vega, W. A. (2001). The role of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physical health of Mexican-origin adul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3(4), 399-429.
- Finch, B. K., Kolody, B., & Vega, W. A. (2000).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exican-origin adults in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3), 295-313.
- Harrell, S. P. (1997). *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 Harrell, S. P., Merchant, M., & Young, S. (1997, August).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acism and Life Experience Scales (RaLES)*.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6).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5) [Software].
- Jasinskaja-Lahti, I., Liebkind, K., Horenczyk, G., & Schmitz, P. (2003). The interactive nature of accultura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ttitudes and stress among young ethnic repatriates in Finland, Israel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1), 79-97.
- Kosic, A. (2004). Acculturation strategies, coping process and acculturative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4), 269-278.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renzo-Blanco, E. I., & Cortina, L. M. (2013). Towards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Latino/a acculturation, depression, and smoking: A gendered analysis.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1*(1), 3.
- Lorenzo-Blanco, E. I., Unger, J. B., Ritt-Olson, A., Soto, D., & Baezconde-Garbanati, L. (2011). Acculturation, gender, depression, and cigarette smoking among US Hispanic youth: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1), 1519-1533.
-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8-331.
- Moyerman, D. R., & Forman, B. D. (1992).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stud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4*(2), 163-200.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driguez, N., Myers, H. F., Mira, C. B., Flores, T., & Garcia-Hernandez, L. (2002).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for adults of Mexican origin. *Psychological Assessment, 14*(4), 451.
- Ryder, A. G., Alden, L. E., &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
- Schmitz, P. G. (1992). Immigrant Mental and Physical Health. *Psychology & Developing Societies, 4*(2), 117-131.
- Sellers, R. M., & Shelton, J. N. (2003). The role of racial identity i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79.
- Shen, B. J., & Takeuchi, D. T. (2001). A structural model of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nes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387-418.
- Smart, J. F., & Smart, D. W. (1993). Acculturation, biculturalism, and rehabilitation of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24*, 46-51.
- Taft, R. (1977). Coping with unfamiliar cultures.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1*, 121-153.
- Torres, L., Driscoll, M. W., & Voell, M. (2012).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psychological distress: a moderated mediational model.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8*(1), 17.
- Waraich, P., Goldner, E. M., Somers, J.M., & Hsu, L. (2004). Prevalence and incidence

- studies of mood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9(2), 124-138.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Williams, D. R.,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3).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00-208.
- 1차원고접수 : 2016.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6. 09. 20.
최종원고접수 : 2016. 09. 21.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 Mediated Moderation Model**

Minji Lee

Hyein Chang

Jinyong Ju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The present study examined conjoint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to North Korean refugees' levels of depression. Specifically, we tested a mediated moderation model in which interactive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on were hypothesized to predict depression via their effects on acculturative stress. A total of 87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assessing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and duration of residence in the South and recruitment sit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s covariates. Results indicated that acculturative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lthough this indirect effect was not moderated by acculturation. Moreover, direct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Sou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and interactive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x Nor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x South Korean cultural orientation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